

구 일본 우선 주식회사 오타루 지점

오타루 운하 북쪽 끝에 있는 일본 우선(닛폰 유센, NYK LINE)의 훌륭한 사옥을 보면 도시의 전성기 때의 번영이 떠오릅니다. 이 건물은 일본의 대형 해운 회사 중 한 곳인 일본 우선의 사옥으로 1906 년에 완공되었습니다. 당시 일본의 일류 건축가가 최고급 재료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 도시의 건물을 설계했습니다.

일본 우선의 사옥과 인접한 석조 창고는 사타치 시치지로(1856 년~1922 년)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. 사타치는 현재의 도쿄 대학에서 영국 건축가인 조시아 콘도르(*Josiah Conder*, 1852 년~1920 년)가 지도한 1 기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. 그의 설계는 유럽에서 유행하던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. 이 건물에는 좌우대칭 레이아웃, 망사르드 지붕, 도머창, 구조와 장식 모두에 돌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데, 이는 이 건물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.

이 사옥에는 미국의 강철 셔터, 지하에 있는 증기난방을 위한 보일러실, 이중 유리창 등 홋카이도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. 1 층의 대부분은 다목적 공간이었으며, 이곳에서 사무직원들이 화물의 출하 관리를 하거나 목재 카운터에 직원이 배치되어 승객이 선박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일본 우선은 중국, 유럽, 인도, 미국, 호주의 항구에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는 증기선을 58 척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

2 층에는 회의실과 전용 라운지가 있으며, 바닥은 쪽모이 세공 마루로 되어 있고 벽에는 회반죽이 아름답게 칠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벽지에는 긴카라카미(유럽의 길트 가죽과 비슷한 금박과 엠보싱 가공이 되어 있는 화지)가 사용되었습니다.